

동인 제7호 [매월] 등 록 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7년 7월 1일 발행인 : 장민기 인건개발연구원(KHDI) 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2203 3500(전) F.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 탐음 이계경 pas@khdi.or.kr 인쇄 : (주)동명인쇄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희망의 증거'

머릿글 조각가 이상길

7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윤은기

커버스토리 하버드대 박사 서진규

혁신교육 현장스케치 양양군 팀워크이야기

지자체특강 충북대 교수 강형기

발행인 편지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문화개발원 원장 김진익

회원 & 연구원소식

청화대최고위정책과정

섬머포럼

회원칼럼 (주)실버텍스 사장 정만우

조순칼럼

표지인물 서진규 박사 / 사진 오경근 원장

2007 July

7

NINA RICCI
Kinloch Anderson
SCOTLAND



롯데본점 롯데잠실 롯데역사 롯데강남 롯데이아 롯데분당 롯데일산 롯데대전 롯데부산 롯데동래 롯데광원 롯데대구 롯데전주 현대본점 현대우역
현대목동 현대부산 신세계본점 신세계강남 신세계죽전 삼성분당 갤러리아수원 갤러리아둔산 디백프라자 구로점 중계아울렛 삼성점 주안점 동일상설점
원풍물산 주식회사 www.wonpung.com

작품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상길 조각가 / 국민대 겸임교수

한 마디로 대박이 났다. 한국의 대표적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5월 9일~13일)에서 말이다. 작년과 달리 전 시장을 코엑스 인도양홀과 태평양홀 두 곳을 사용한 올해 한국국제아트페어는 세계 18개 나라에서 화랑 208곳이 참가하고, 작가만도 1천3백여명이 참여하였다. 출품된 작품도 5천여 점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접하지 못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 독일 출신의 신표현주의 작가 게하르트 리히터와 키네틱아트의 선구자인 미국의 알렉산더 칼더, 현대미술의 비틀즈라 불리는 데미안 허스트 같은 거장들의 작품들도 참가했다. 현대미술의 흐름과 향방도 예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총 관람객만 6만5천명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 5일만의 매매가가 1백75억원이다. 추가주문까지 고려하면 2백50억에서 30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다. 지난해 총매출이 1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마디로 대박이 났다고 볼 수 있다. 작가로서 미술품에 대한 관심과 소장가치(투자가치)로서의 인식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참으로 기뻐할 일이다.

그렇지만,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상황이다 보니 미술품의 투자열기는 투자가치로서의 기대 심리가 한층 더하여 마지막 날은 마치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처럼 '떨이' 형식의 가격할인 양상이 빚어졌다. 여기저기서 20~30%까지 싸게 구입했다는 관람객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문지마 컬렉터들의 과열로 시중 화랑에서 200만원 정도의 작품이 경매에서는 1천만원까지 올라가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작품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기에 하나의 물건이 되었을까? 물론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는 관람객과 작품이 좋아 꾸준히 수집하는 진정한 소장가들도 많이 늘어난 추세이다. 하지만 작가의 입장에서, 작품의 감동과 그 작품과의 소통이 소장자에게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경제강국의 도약 시기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투기열기와 그 외 부동산자금의 미술품 투자열기는 문화강국으로 진입하는 OECD 국가의 보기 좋지 않은 추태로 비쳐지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만 하다.

작품을 표현하는 작가로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현대미술은 너무 어렵고 모르겠다는 푸념과 어떤 작품을 구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들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시각예술 즉, 미술작품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이 꼭 아름답음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나 작가의 관심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때문에 즉각적인 흥미나 감동을 줬을 시간에 공감하기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가이자 미술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수많은 작품들을 접하고 있지만 작가의 작품 몇 점만을 접하면서 작품을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단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

소한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는지 반문하면서, 작품을 읽고 느낄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먼저 작품에 대한 애정을 갖길 권한다.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과 관심을 가질 때 그 작품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작품이란 참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시대적 변화에도 끊임없는 감동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을 눈으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업을 행할 때도 경영학, 경제학, 리더십 이론 등을 배운다. 마찬가지로 작품을 구매할 때도 이만큼의 노력이 들어야 한다. 사진 컬렉션으로 유명한 이치하라 에스로 리는 일본인이 있다. 그는 유학 시절 하루 10시간씩 작품을 감상하고 공부하면서 작품을 선별하는 감각이 생겼다고 한다.

작품 역시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상품이요 부를 창출하는 자산이다. 그러나 그것들과 다른 것은 그 상품이 '정서적인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상품의 가치는 현재가 아니라 작품 속에 깃든 가치(예술성과 독창성 등)가 시간과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검증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작품은 미래를 향한 투자이자 모험일 수 있다. 사업에서 단지 현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시간 스케줄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투자를 한다. 마찬가지로 작품 구매도 미래를 내다본 투자이자 일일 수 있다. 합리성과 논리성에 기반하되 끼와 느낌, 그것은 바로 기업가의 야성적 기질이다. 바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을 때 한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지듯이 작품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간파할 수 있는 컬렉터가 많아질 때, 한국의 문화와 미술시장도 성장할 수 있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작품에 품어내고 있는 작가의 영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낼 수 있는지. 반짝 왔다가는 투자의 열기보다는, 일상에서 연극을 보고 연주회장과 미술전시장을 찾는 관객으로 변모하여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의 향기를 누릴 수 있는 신바람난 미술 애호가가가 많아질 때, 우리들의 일상은 행복하고 문화강국으로서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작품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다만 작품에게 말을 거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들려주는 법이다. 우리 모두 그 작품이 들려주는, 살아 숨을 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 **KAHA**



이상길 조각가

1964년 생으로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와 일본 다마(多摩)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과 미국 프리먼재단의 Asian Award를 수상했고, 2006년 김종영미술관의 오늘의 작가로 선정되었다. 우주와의 교감, 열린 소통 등의 테마로 '숨을 쉬고 있는 상자', '부유(浮遊)', 'Contact'의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저서로 <작업실을 보는 여섯 가지 방법>이 있으며, 현재 국민대 미술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7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리더의 영혼을 가꾸는 전방향 리더십

1508회 7월 5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리더십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나 개념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리더십의 트렌드는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은 리더의 또 다른 덕목이 된다.

21세기의 리더십은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술, 재주, 경영기법이 아닌 인격과 영성이 통합된 전방향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리더는 예리한 실력은 물론 균형 잡힌 깊은 영성으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성품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의 기준은 자신이 이룬 업적의 크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왔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화려한 길이 아니라 끝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험곡의 길인 것이다.

모든 사람은 4가지 방향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자기 자신(self)과의 관계, 윗사람(up)과의 관계, 동료(side)와의 관계, 아랫사람(down)과의 관계가 그것이다. 이를 전방향 리더십이라고 한다. 탁월한 리더십은 이 네 가지를 역동적이며 유기적으로, 얼마나 동시에 건강하게 잘 다루는가에 달려있다. 교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사회에서도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한홍 목사는 이와 같은 전방향 리더십을 강조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시대와 인물을 관통하는 리더십 이야기로 리더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한홍 목사를 초빙하여 전방향 리더십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대 트렌드에 맞는 리더로서의 성장법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부동산 불확실성 시대의 과학적 투자 해법

1509회 7월 1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은 무엇일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단연 부동산이 1위다. 그러나 요즘의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불확실해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위험은 줄이면서 안전하게 고수익을 보장받는 현명한 투자법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것일까?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싸게 사고 비싸게 되파는 형식의 시세차익형 부동산 투자가 가능했고, 운이 좋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8.31부동산종합대책과 3.30후속대책 등의 발표로 부동산시장은 점점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그런 전매차익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부동산시장에서는 과학적인 시장분석으로 투자의 목표를 다시 잡고 그에 맞는 투자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단순히 치고 빠지는 식의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10년 후 부자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 부자들이 가장 만나보고 싶어하는 부동산 전문가인 고종완 대표를 초빙하여 그의 모든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고종완의 비밀노트'에 담겨있는 부동산 투자의 과학적 방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홍 온누리교회 목사 / 햇불 트리니티 리더십센터 원장

美 UC버클리대 졸업 |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 풀러신학대학원 미국 교회사 박사 | 삼성, LG, 농심, KT, SK, 법제처 등 대기업, 공공기관 리더십 특강 | 연대세브란스병원,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주강사 | 조선일보 '한홍의 리더십 칼럼' 연재 | 양재 온누리교회 수석 목사 | 햇불 트리니티 리더십센터 원장

<저서> 거인들의 발자국, 칼과 칼집, 리더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시간의 마스터, 세상 중심에 서다 외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부산대 법대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 | 삼성그룹, LG그룹 근무, 한국통신 부장 | 건설교통부 정책자문위원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 겸 균형발전위원 | 고려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 GS건설 자문위원 | 한국부동산 경매사업회 부회장 | 건국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 (주)고고에셋 대표

<수상> 헤럴드경제 2005 CEO경영대상 '부동산 투자자문 부문 대상', 한국경제TV 2006 부동산전문가 부문 1위 선정

<저서> 부동산학개론, 차별화된 부동산,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외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한 경기도의 비전과 전망

1510회 7월 1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부위원장 | 민주당 노동위원장 | 신한국당 대표특보 | 제15, 16, 17대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민생정치연구회 회장 |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수상> 녹색정치인상, 환경노동위원회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상, 15대 국회 의정활동 모범상 외

<저서> 1992년 노동인권보고서, 아직도 나는 넥타이가 어색하다, 지옥철 대통령도 같이 탑시다, 나의 길 나의 꿈 외

경기도는 서울보다 면적이 17배나 넓고, 좋은 땅이 많다. 우수한 기술, 도시계획능력, 수요까지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할 인재도 많다. 문제는 어떻게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경기도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점이다.

3선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김문수 지사가 취임 1년을 맞았다. 그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체험해보니 정말 실감할 수 있는 1년이었던'고 밝혔다.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다 발전수요 또한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경기도에 필요하고 대한민국에 유익하다면 반드시 하겠다는 '김문수의 약속'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의 약속은 스피드 행정, 현장 행정, 간막이 제거 행정 등으로 표현된다. 이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와 명품 신도시 건설, 경기 기업 SOS지원센터 개설 등은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산업의 기획, 제작, 유통, 소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주목된다. 하지만 경기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물규제, 토지규제 등이 개선돼야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취임 후 하루 평균 2.8회, 총1004회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해 지구 한 바퀴 반의 이동거리를 기록할 만큼 도정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 김문수 지사를 초빙하여 지난 1년의 성과를 들어 보고 21세기 동북아의 새시대를 열어 가는 경기도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기론으로 본 21세기 일본 사회시스템의 과제와 전망

1511회 7월 26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후지와라 사쿠야(藤原 作彌)

일본 히타치연구소 소장 / 전 일본은행 부총재

동경외국어대 불어학과 졸업 | 시사통신사 오타와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 | 시사통신사 편집국 경제부, 편집위원, 해설위원, 해설위원, 해설위원회 고문 | 일본은행 부총재 | 히타치연구소 고문, 사장 | 동북전력(주) 감사역 | 매일신문사 감사역

<저서> 맨얼굴의 일본은행 총재들, 나의 생활 대국, 비즈니스 독본학, 공수포지션을 바꾸어-일본은행 부총재가 된 경제기자, 소안(素顔)의 일본부총재일기 외

거품 붕괴 후 일본에 불어닥친 장기불황은 근대국가로서의 일본이 지난 130년 사이에 만난 최대의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거시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제로금리정책이라는 극단적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본의 상황은 제2차대전 후에 생긴 일본 경제시스템의 내용년수(耐用年數)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오랜 세월 금융전문 기자로서 일본은행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을 해왔던 후지와라 사쿠야 히타치연구소 소장은 공격 입장에서 수비 입장으로 전향해 일본은행 부총재로서 독립성과 투명성이 높은 정책운영을 목표로 일본은행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는 이 같은 일본의 상황을 전제로 진정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21세기의 일본이 과학기술, 환경,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잡힌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일본이 복지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생활선진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원은 한국 오피니언 리더의 강연 및 한국기업 방문, 문화체험 등으로 진행되는 한일경제인 교류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3년 전부터 돕고 있는 가운데, 30여명의 일본 지방은행한국연수시찰단의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한 후지와라 소장을 초청하였다. 이에 이번 연구회에서는 현재 일본이 처해 있는 사회시스템의 문제점과 방향을 점검해보고, 한일 양국의 중소기업 금융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제1504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6월 7일(목)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매력이 경쟁력이다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사 램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을 '매력'이라고 한다. '매'자는 도깨비 魅이다. 도깨비처럼 홀리는 힘, 도깨비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것이 매력이다. 매력이 있으면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다.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 매력지수를 언제 최고로 높이려고 노력했는지를 물어봤더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라고 대답했다. 연애할 때는 파트너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옷도 잘 입고, 표정관리도 잘하고, 말도 매력적인 것만 골라서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해서는 아내에게 잘 못하는데, 바로 연애할 때는 상대방에게 홀려 있기 때문이다.

도깨비처럼 홀리는 힘, 매력

소프트파워 활용해 개인총매력지수 높여야

매력은 권력, 금력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 우리말로는 매력을 멋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attractive, lovely, sexy 등으로 표현한다. cool이라는 말도 원래는 시원하다는 뜻이지만 미국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매력이라고 쓴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될수록 선진화된 커뮤니티라고 얘기한다. 우리나라 1인당 GNP가 아직은 좀 낮지만 한국사회는 매력 지향적인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경제수준이 높아졌고,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민주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경제발전과 교육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왔기 때문에 견고하다. 일부에서는 과잉 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만 경제력, 교육수준, 민주화 수준이 이 정도 되면 매력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나는 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하는 분야에서 꼭 성공할테니 대신 내조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아내가 내조를 잘 하는 것이 뭐냐고 묻기에 출퇴근할 때 열렬히 환영하면서 손 흔들 어주고 박수쳐 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도 내가 출퇴근할 때 아내가 그렇게 해주고 있다. 아이들도 퇴근해서 들어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나와 열렬히 환영해준다. 그래서 나는 힘든 일이 있으면 술 마시러 가기보다 집으로 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환영해주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좋은 가정의 문화가 드라마 '주몽'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주몽 역할의 송일국에게 푹 빠져서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모른다. 송일국의 사인이 받고 싶다고 해서 송일국 사진에 사인을 받아줬더니 뿔 듯이 기뻐하면서 가족사진을 빼고 거기에 사진을 넣어서 걸 어줬다. 아내는 송일국의 매력에 빠진 것이다.

아내가 송일국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배운 대로 진단해보자면 아내는 지금 심신이 건강한 상태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배용준을 따라다녔던 일본 아줌마들은 대부분 부부사이가 원만하다. 그래서 남편들이 한국 갔다 오라고 비행기 표도 끊어주는 것이다. 갈등이 있는 부부는 그렇게 다니다간 큰 싸움만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줌마들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이다. 먹고살기 힘들면 못 따라 다닌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이면서 교육수준 높고, 부부관계 원만한 사람들이 배용준을 찾아와서 눈물 흘리고 난리 치는 것이다.

그래서 알게 됐다. 아내는 집안 경제가 어렵던가, 부부갈등이 심하면 남편 눈치 봐서라도 그런 얘기를 못할 것이다. 부부사이도 괜찮고, 자식들도 속 안 썩이고 공부 잘하고 있고, 먹고사는데도 별 지장 없으니 까 송일국이라는 인물의 환타지 속에 빠져서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남편으로서 개인총 매력지수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것이다. "저 사람 내가 봐도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인도 얻어주고, 주몽 포도주도 갖다 주면서 "드라마 끝나는 날 같이 마시자"라고 얘기 했더니 지금까지 못 따고 쳐다만 보고 있다.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10년 전 같으면 텔레비전을 꺾다 꺾다 하면서 서로 싸웠을 것

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마음을 빼앗지는 못한다. 텔레비전을 꿀 수는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프트파워로 대응했더니 결론은 드라마 때문에 부부사이가 더 좋아졌다. 동네 아줌마들이 그 사인을 구경하러 와서는 "당신 남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남편 칭찬을 하더라는 것이다.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한 살씩 먹을수록 점점 매력적이네"라고 얘기하게 된 것이다.

매력의 원천은 진선미

배용준은 지난해 소득세만 98억4천만원을 냈다. 작년 가을에 일본에 갔는데, 배용준이 일본에서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현재 예약자만 5000명을 넘었다고 했다. 전지현도 매력이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인기가 대단하다.

테니스 선수인 비너스 윌리엄스와 사라포바는 실력이 비슷하지만 개인총매력지수에서 사라포바가 좀 더 높다. 용모도 빼어나지만 옷 입는 것, 귀걸이 등 전체적인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사라포바를 띄운 결정적 이유가 사운드 장작이다. 서브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지른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사운드에 무척 약하다. 광고의 콘티를 아무리 잘 짜도 사운드를 잘못 입히면 그 광고는 끝이다. 음악이 없는 종교가 없고, 음악이 없는 군대가 없다.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감성적으로 띄운다. 사라포바는 특이하게 전체매력지수도 높는데 사운드까지 장착되어있다.

지난 연말에 송별회를 하는데 마술사 이은결을 초대하려고 섭외 했더니 30분 공연에 1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그나마도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은결은 젊은 마술사, 매력적인 마술사로 이미 브랜드 가치가 오른 것이다. 마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은결의 매력적인 마술을 보기 때문에 비싸지는 것이다.

클린턴은 잘 생기고, 골프 잘 치고, 악기연주 가능하고, 사교춤 잘 추고, 스피치 또한 대단하다. 그가 대통령 재임 때 그를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백악관으로 불러들인 뒤 식사를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를 싫어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머리도 좋지만 EQ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일단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특기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쓴 <살아있는 역사>라는 자서전이 있다. 그 책 내용 중에 '마침내 그가 시인한 순간 피가 솟구치면서 그의 목뼈를 부러뜨려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옆방에 가서 잠시 생각해보니 비록 흠집은 났지만 내 생애에서 그 보다 더 매력적인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단 덮어두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이 진심인지 정치적 야심으로 위기관리를 한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클린턴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를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쩌면 힐러리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서 보니까 인물도 잘생기고, 스피치도 너무 잘하고, 표정관리도 너무 훌륭했다.

클린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매력의 가장 깊은 원천에는 진선미가 있다. 인류에게 있어 오랜 동안의 주제인 진선미가 바로 매력의 원천이고 매력은 거기서부터 다양하게 파생됐다고 보는 것이다.

매력강국이 선진국

한국사회도 매력형 사회로 바뀌고 있다

권력이 가장 막강할 때는 독재 권력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독재 권력을 경험했었다. 독재는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 정도의 견고한 민주주의가 되면 겁나는 것이 없다. 또 부패한 사회에선 금력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아직도 지구촌에는 그런 곳이 많다. 그런데 한국은 돈 준 사람도 다치고, 받은 사람도 다치고, 추적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된다. 한국사회도 한때는 권력형 사회, 금력형 사회였지만 지금은 매력형 사회로 바뀌고 있다.

사람은 권력형, 금력형, 정력형, 매력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매력형 인간만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을 이끌어 가고 가치와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대통령이 매력 있는 사람이면 중립적인 정책이라도 지지하는 여론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밍고 매력이 없을 때는 중립적인 정책이라도 그냥 반대하는 여론 경향이 발생한다. 이 점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할 일은 다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정책이라도 매력적인 사람이 주창하고 제안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동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통령 본인 얘기는 그렇다. "내가 매력이 없다면 자꾸 무시하는 모양인데 내용은 괜찮은 것이다" 나는 대통령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통합도 되고 추진력도 훨씬 많이 생긴다.

대학원 학생들에게 존경할만한 사람과 매력적인 사람 중에 누구와 결혼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100% 매력적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존경할만한 사람은 옆집에 사는 것이 제일 좋고, 자기는 매력적인 사람과 결혼해서 재밌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과거 가난하던 시절에는 부잣집으로 시집 장가를 가려고 했다. 그 시절 이것은 정상적인 욕구였다. 또 권력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권력자 집안과 결혼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나 권력에 별 관심이 없다. 내가 진짜 매력을 느끼는 사람과 결혼해서 뚝고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매력형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의 기준도 군사강국에서 경제강국으로 문화강국으로 매력강국으로 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국민 총생산지수보다 국민 총매력지수가 중요하다. 한때 싱가포르가 벤치마킹의 대상이었지만 요즘은 핀란드, 두바이가 뜨고 있다. 국민 총매력지수가 높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가보고 싶어야 하고, 재미가 있어야 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야 하고,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가 사용돼야 하고, 매력이 높아서 사람과 돈을 끌어들이는 국가가 돼야 한

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매력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오고, 사람이 오고, 돈이 온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 개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력을 키워야 한다.

두바이에 공연예술센터가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예술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자체도 퍼포먼스이다. 이제 이런 매력을 장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버즈 두바이는 매력적인 상징물이다. 자칭 칠성급이라는 버즈 알 아랍 호텔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호텔이 아니다. 타이거 우즈나 안드레 아가시 등 스포츠 선수들을 불러서 이벤트를 하고, 팜 아일랜드, 스키장 등을 만들면서 매력장착을 하고 있다.

고매력 기업이 창의적 성과 도출

어떤 분이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연봉의 80%를 주고, 완벽한 복지후생 제도가 있는데도 우수 인재들이 오지 않고, 새로 입사한 직원도 6개월 안에 퇴사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미혼자는 애인에게, 기혼자는 아내에게 자랑할만한 그 회사의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10개만 얘기해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분이 당황해 했다.

기업도 이제는 매력적인 것이 없으면 다 떠나간다. 포춘지에서는 미국 내 100대 기업, 전세계 500대 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 기업들은 모두 일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환경파괴, 비리, 윤리문제 등으로 주가가 추락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환경경영, 준법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경영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 잘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경영이다. 그런 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이다.

그런데 우리 대학원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지, 매력적인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물으니 100% 매력적인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여러분들도 우리 회사가 매력적인 회사인지 잘 봐야 한다. 매력적인 기업이 아니면 우수인재가 오지도 않고 거래도 끊어진다. 소비자도 떠나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버지가 힘들게 고생해서 이루어놓은 기업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아들들이 많아졌다. 사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자본주의에서 사업한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있는 일인지를 얘기했어야 하는데, 평생을 죽을 뻔했다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때려치우고 싶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일은 죽어도 안 한다는 소리만 계속 해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에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사업을 넘겨야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얘기해서 설득하라고 했다. 강제로 시킨다고 해서 되겠는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패턴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도 탐내는 직장 구글은 유기농 과일을 사무실 곳곳에 갖다 놓고 아무 때나 마음대로 먹게 해준다. 그리고 무료 세차, 당구대 설치, 탁구대 설치, 노래반주기 설치, 회사 내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전거 비치, 각종 파티 등 별것이 다 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다. 예전에는 우수인재를 IBM에서 다 빼갔는데 지금은 구글에서 모두 데려가고 있다. 이제는 고매출 기업보다는 고매력 기업이 더욱 선호 받고 있다. 매력이 바로 경쟁력이다.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리더십

스마트파워형 리더 돼야 매력형 기업

사자는 사냥할 때 패턴이 있다. 첫째는 천지가 진동하도록 포효한다. 그러면 사냥감들은 혼이 반쯤 빠진다. 둘째는 번개같이 달려가서 앞발 톱으로 한방 때리면 나머지 혼이 다 빠진다. 셋째는 반드시 목덜미를 물어뜯는다. 그러면 덩치가 두 배, 세 배 큰 짐승도 그냥 고꾸라진다. 약육강식,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또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수사자끼리 싸우는데 그것은 사투이다. 이긴 자는 남고, 진자는 커뮤니티에서 쫓겨난다. 쫓겨난 사자는 결국 파상공예에 걸려서 죽고 만다.

그런데 패러다임을 바꾸고 유심히 봤더니 싸움에서 이긴 사자도 암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고 비비면서 온갖 아양을 다 떨었다. 그렇게 애교를 떨어야만 암사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다. 그 때 깨달은 것이 맹수조차도 사냥할 때, 경쟁자를 물리칠 때는 하드파워, 파트너를 구할 때는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부하에게는 어떤 파워를 써야 하는가? 당연히 소프트파워를 써야 한다. 우리는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하에게 소프트파워를 써야 하는데 문화적으로 잘 안되어 있다. 권력지향사회에서 살아오면서 하드파워를 썼던 습관 때문인데, 이래서는 대인관계가 다 망가진다. 심지어는 동창회, 사교모임에서도 소프트파워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둘 다 잘 쓰는 사람을 스마트파워형 리더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하드파워형 리더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매력형 기업이란 어떤 기업일까? 우선 CEO가 매력적이어야 한다. 모든 CEO는 PI(President Identity)를 할 줄 알아야 한다. PI를 통해서 안경테 하나, 입는 옷, 타고 다니는 자동차, 스피치, 제스처 등 모든 면에서 총매력지수를 높여야 한다. CEO가 매력이 없으면 거러쳐도 끄기고, 내부적 통합이 안 된다. 매력적인 사람에게 팀워크가 생기고, 매력적인 사람에게 거러쳐가 쫓아오고, 상담을 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한다. 매력적 제품, 매력적 디자인, 매력적인 광고, 매력적인 서비스, 매력적인 브랜드, 매력적 근무환경, 매력적인 기업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CEO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요즘 EQ라는 말이 왜 나오겠는가?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마음을 사로잡는 힘

이 바로 리더십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

매력의 DNA는 많다. 아까 얘기했지만 근본은 진선미이다. 드라마 '주몽'에서 참모들이 적군 대장을 당장 죽이라고 해도 주몽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자기 사람을 만들면서 참모들을 감동시켰다. 베푸는 관용도 매력일 수 있다. 매력은 여러 가지이다. 배용준만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인 김제동도 아주 매력적이다. 늦게 데뷔했지만 매너가 좋고, 친화력이 좋고, 그래서 한번 보면 잊지를 못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띄워준다. 매력에는 아름다움도 있다. 요즘은 특히 '얼짱', '몸짱'이라고 해서 성형외과가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것 또한 일종의 개인 매력을 높이는 것에서 파생된 비즈니스다.

당신이 앉은자리가 바로 꽃자리

매력이 없는 모든 것은 버리고 새로운 매력을 창조해야 한다. 매력이 경쟁력이다. 한국 사회도 전쟁의 폐허로부터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매력적인 국가가 돼야 한다. 특히 외국에서 볼 때 매력적인 국가가 돼야 한다. 관광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매력이 있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캐치프레이즈는 '맑고 매력적인 서울 만들기'이다. 공군모 부대의 캐치프레이즈는 '매력적인 부대 만들기'이다. 이제 사람들이 매력이 뭘지 알아 가고 있다.

이러령 교수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험블비라는 벌이 있는데, 이 벌은 몸통은 크고 날개는 작기 때문에 기체 역학적으로는 날지 못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날아다닌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날기 때문에 날아다닌다는 것이다. 슈퍼심리학이라는 것이 있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런데 닭은 몸통에 비해 날개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날아다닐 수 있는데 '나는 닭이다. 고로 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러령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이 위대하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없이 창의적인 도전을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강국이 된 것 아니냐고 하셨다. 이렇듯 끝없는 도전은 매우 중요하다. 0%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포기하는 것이 바로 최악의 상태이다.

얼마 전 한국도로공사 손학래 사장의 방에서 구상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봤다.

앉은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CEO들은 자신의 자리를 가시방석 자리로 여길 것이다. 나도 총장에 취임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를 보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앉은자리가 바로 꽃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많은 CEO들이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당당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힘을 통해 극복하는 분이 진정한 리더이고 리더십을 가진 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진 오경근 원장



■ 위 : 16년만에 하버드대 박사 학위를 받은 서진규
■ 아래 : 하버드대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이준구 총재, 카터 에거트 교수와 함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희망의 증거'

서진규 하버드대 박사

"젊은 시절에는 분노와 오기뿐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무시 받는 만큼 그들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죠. 그렇게 하나씩 성취해가다 보니 어느새 분노와 오기는 사라지고 내 안에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가발공장 직공, 골프장, 식당 종업원. 1971년 전 재산 100불로 미국 가정부 취업이민. 미 육군 입대, 소령 예편. 하버드대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삼의 밑바닥에서도 굴하지 않고 희망의 불씨를 살렸던 서진규가 걸어온 길이다. 그는 자신을 가로막는 역경의 장벽을 뚫고 마침내 '희망의 증거'로 우리 앞에 섰다. 그에게 고난의 벽은 꿈을 이루기 위한 관문에 불과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하는 그는 군인으로서, 학자로서, 어머니로서 우리사회의 '희망의 증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영터리 학자'라며 낮춘다. 학문에 대한 열망보다는 인정받기 위한 도전으로 학업을 택했기 때문이라한다. 그러나 가발공장 직공도 하버드대

박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표, 비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터. 서진규에게 상상력은 곧 비전이었다. 힘들어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성공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상상'이었고, 그 상상의 힘이 오늘의 그를 만든 것이다.

저술활동과 함께 전 세계를 돌며 젊은이들을 상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그의 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달 말이면 '학생 서진규의 풀 스토리'가 책으로 나온다. 아버지를 소재로 한 책도 영문으로 완성한 상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서전 출판과 함께 영화제작도 꿈꾸고 있다.

전 세계의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서진규 박사를 만나 16년만에 하버드대 박사 학위를 따기까지의 인생 역경과 진솔한 삶의 뒷이야기를 들어본다.

<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7월에 세 번째 책이 출판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전 책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소개해주세요.



99년 처음 출판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자서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삶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풀어서 쓴 글이기에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죠. 두 번째 책 <희망은 또 다른 희망을 낳는다>는 고교 졸업 때 미국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하버드를 졸업한 딸을 키운 이야기입니다. 자녀교육이 주된 내용이었죠.

7월말에 출판 예정인 <하버드의 늦깎이 공부벌레>(가제)는 초등학교부터 하버드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영어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더욱이 온전한 학생일 때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좌절도 많았었죠.

그동안 학생신분으로 지낸 세월이 31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매릴랜드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대학도 5곳이나 옮겨다녔어요. 더욱이 박사 학위는 16년만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부 당시는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보다 3~4살이 많았었는데, 그들이 내 나이가 많다고 상대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열등의식, 자각지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에 가서는 그런걸 느끼지 못했어요. 40대 초반에 석사과정에 입학했는데, 동기들보다 20살은 많았죠. 그래도 그들이 친구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이를 잊고 지냈어요. 마음이 젊으니까 공부도 더 잘 되더군요. 그 때 비로소 세상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박사 과정 중에 C형간염이 악화돼서 병과 싸우면서 겪었던 좌절, 절망에 관한 이야기를 책 속에 담았습니다.

학생신분으로만 31년, 16년만의 박사 학위 취득. 이토록 학업에 목말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꼭 학업을 위해 박사 과정을 시작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회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당시 저로서는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학문에 대한 매력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오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거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가고 인정받고, 그래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더욱 신나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버드에 입학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군복무를 하면서 '지역전문가'라는 직종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언어도 가르쳐주고, 대학원 교육 기회도 주고, 그 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매우 흥미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동북아지역전문가에 지원했는데, 남존여비 사상에 폭 젖어 있다고 여기던 한국과 일본 남자들과의 협상을 우려해 그 지역 전문가로는 여자를 뽑지 않는다고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설득 끝에 시범케이스로 뽑혔죠. 그런데 제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그 지역에 여자를 뽑을 일은 없는 상황이 될 거라 해도

과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했죠.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하버드대 졸업장이었습니다. 하버드대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문대학으로 일본이나 한국 남자들을 설득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배경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석사과정을 마치고 보니까 주류는 박사 과정을 밟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으로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류에 포함되고 싶은 도전의식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첫 지원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오기가 생겨서 다음해에 다시 지원했죠. 아마 첫 지원에서 바로 합격했다면 박사 학위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엉터리 학자입니다.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닌, 오기로 도전을 한 사람, 군 시범케이스의 성공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동안 자신감은 몰라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전역하고 하버드로 돌아가서는 가발공장 직공도 하버드대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스스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미 육군에 자원 입대한 것도 또 다른 도전의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군 입대를 당연시 생각하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직장으로서 군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서 군에 입대한 이유가 어떤 사명감, 정의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고요.



■ 85년 한국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모습

75년 결혼을 했는데, 사실 남편의 폭력이 심했어요. 자주 맞으면서 살았죠. 오죽했으면 남편을 죽이는 상상까지 했어요? 그런데 상상이긴 했지만 통쾌하더군요. 하지만 상상만으로 즐거웠다는 것은 제가 정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한 상상이죠.

그러나 제가 행운아였던 것은 제 옆에는 딸 성아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을 살폈는데 6개월 된 딸이 보였어요. 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한다면 통쾌하긴 하겠지만 내가 감옥에 간 후 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딸 성아는 제게 있어 '행복의 자료'가 되어준 셈입니다. 내가 불행으로 가지 않고



■ 하버드대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딸 성아, 아들 성욱과 함께

행복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 무엇인지 찾았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이 다름 아닌 우리 딸이었던 겁니다. 모성애의 힘은, 딸을 위해서는 복수심도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환경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킬 공간으로 찾은 곳이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피신처로 찾은 곳이기에 몸은 만신창이였고, 군 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죠. 더욱이 딸을 혼자 한국으로 보내고 입대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돌보다가는 잃어버리고 눈물로 찾아 헤매는 꿈을 꾸다 깨곤 했어요. 그렇게 악몽의 밤이 지나면 또다시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곤 했죠. 하지만 군에서도 딸은 여전히 제게 구세주였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무너져버리면 우리 아이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 희생도 못한다면 어찌 자식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랜 겁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동료들보다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 빨래, 다림질, 군화 닦기 정도였습니다. 군에서 훈련받을 때 체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동료들이 못하는 것을 제가 잘하니까 그들에게 인정받고,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또 도움 받은 그들이 체력관리를 도와주곤 했죠.

그래서 두 달 뒤 졸업할 때 200명 중 1등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등을 하면서 인생의 낙오자도 현실 속의 '행복의 자료'를 활용해서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후로는 불가능에 부닥쳐도 가능한 방법을 찾게 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요.

군 훈련을 받는 동안 별거를 했어요. 그러나 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시간이 흐르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결혼생활을 시작해서 둘째 성육어도 낳았죠. 하지만 남편의 열등의식, 자격지심은 또다시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력 앞에서는 또다시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된 겁니다.

남편에 대한 콤플렉스가 박사 학위까지 따게 만들었군요.

그렇죠. 오기나 분노, 반항, 차별, 무시가 저에게는 핵과 같은 에너지를 줬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사회에 대한 일종의 오기가 생겨 벌떡 일어나곤 했죠. '왜 내가 스스로 포기해야 돼? 나는 나를 증명해

야 해라는 결심과 주문을 자꾸만 되뇌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에너지는 상상력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성공했을 때의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죠. 어릴 적 꿈이 암행어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폭군, 악질관료들을 심판하는 암행어사가 되어 착하고 억울한 약자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 표정을 마음에서 느껴졌. 이 느낌은 어느 음식보다 훌륭하고 맛있는 것이었어요. 포기하려다가도 그런 미래를 상상하면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나중에 알게됐는데, 사람들이 이를 비전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상상력으로 만들어졌던 미래의 모습이 결국 비전이었습니다.



■ 정만기 회장과 서진규 박사가 대담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

에 스스로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사람들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학업에 전념하느라 오히려 건강이 악화됐는데, 지금은 어떠신지요.

C형간염은 보통 수혈을 통해 전염된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들을 출산하면서 갑자기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그 때 수혈 받으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C형간염균은 20~3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는데, 저도 97년 헌혈을 하려다가 보균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병을 알고서는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하늘에 대한 분노가 일더군요. 정말 이렇게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오기와 원망으로 한동안 자학에 빠져 살기도 했어요.

2003년 하버드로 돌아갔을 때는 상태가 악화돼 간암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논문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다보니 정말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더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힘들었던 순간을 넘어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지 9개월 정도 되는데, 즐겁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면역력을 키우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완치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믿음생활이 병마를 이기고 역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건가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작년에 병을 치료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분노, 반항, 오기, 상상력이 핵과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 스스로를 붙잡

아주, 동기부여를 해줬죠. 또한 딸을 '행복의 자료'로 생각하면서 희생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가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악인의 본능을 버리고 스스로 깨달아 저를 지켜 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면서 제가 역경 속에서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역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제게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 가장 잘한 선택과 후회되는 선택은 어떤 겁니까.

71년 단돈 100불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갔죠. 어떤 정보가 있어서 갔던 게 아니라 신문광고를 보고 가정부로 취업하기 위해 간 겁니다. 그 때는 취업을 미끼로 한 인신매매가 성행할 때였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죠.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수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미국으로 간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딸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복수심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설득한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비행을 일삼던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때의 선택이 옳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제게 많은 역경이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물론 후회되는 일도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4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데려오지 못했어요. 지금은 성장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딸에게는 나름대로 과학적,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면서 교육을 시켰지만 아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다행히 엄마와 누나가 하버드를 졸업하는 모습을 보고부터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뭔가에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증거'로 자리매김한 지금, 여전히 꿈꾸는 것이 있을텐데요.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까 합니다. 12월초쯤으로 계획중이죠. 박사 학위, 건강회복, 7월 책 출판을 기념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초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대로 군부대와 대학들을 방문하면서 젊은이들의 마인드를 혁신하는 강연활동을 하고 싶어요. 미국에서도 자서전을 출판하고, 제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해 볼 생각입니다. 그 후에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군을 위한 강연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는 물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희망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신날 뿐입니다.

연구원과는 99년에 처음 인연을 맺으신 걸로 기억됩니다. 강연도

여러 차례 하시고, 폴 J. 마이어의 LMI 리더십 프로그램도 경험해 보셨는데요.

99년 한 방송사에서 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소개되면서 연구원과 인연을 맺었죠.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초찬세미나나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연구원뿐 아니라 외부 강연이 있을 때마다 활용하는 스토리 중 하나가 폴 J. 마이어의 LMI 프로그램입니다. 직장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과 돈이 아닌 남을 돕기 위한 사명으로 여기는 것은 그 일에 임하는 태도, 방법,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게 폴 마이어 회장의 생각이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 사명을 가지고 임하면 삶이 즐겁고 가치있고,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 줍니다.




■ 2005년 8월 국회에서 강연하는 서진규 박사

정말 중요한 것은 일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겁에 물이 반잔 들어있는데, 벌써 반이 비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고, 같은 일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폴 마이어 회장의 메시지와 철학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32년간 변함없는 새벽을 깨워오셨다는 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변함없는 연구원의 모습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연구원이 정보의 광장으로써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참여하는 멤버들이 학습하고 친교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멤버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통한 윈윈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출되는 시너지효과를 이용해 연구원이 세계적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멤버들도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현재 연구원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입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박사님께서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서진규 박사

1948년 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개발공장 직공, 골포장 및 식당 종업원, 경리사원 등으로 일하다가 71년 미국 가정부로 취업이민을 떠났다. 76년 미 육군에 자원 입대해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 근무하다 96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군 복무 중 메릴랜드 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90년 하버드대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지난 2006년 6월 하버드대 대학원(국제외교사와 동아시아언어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양양군의 Wonderful Teamwork 이야기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양양군 공직자들의 변화와 도전, 그리고 창조적인 조직 활성화 구축을 위한 '바다사랑 해양훈련'이 삼척시에 있는 강원대 부설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에서 있었다. 양양군청 및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군내 공직자 64명이 참가한 이 교육은 32명씩 1, 2기 2개 팀으로 나눠 1박2일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생들은 푸른 바다와 백사장이 어우러진 해양센터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4가지 새로운 팀워크 훈련에 들어갔다.

정리 · 서봉석 교육팀 주임 sbs7702@naver.com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간

첫 프로그램은 애니어그램을 통해 나와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애니어그램은 총 2교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교시에는 애니어그램이 무엇인지, 애니어그램의 역사와 이론에 대해 한국애니어그램 김현정 대표로부터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다. 애니어그램은 '9개의 점이 있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중등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해 온 지혜이다. 애니어그램

을 통해 사람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의 행동 동기와 유형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 개개인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각 유형이 어떻게 다르고, 또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다.

2교시에는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 중 각자 자기에게 해당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유형별로 모여 서로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각자 해당되는 유형에 대한 에피소드와 함께 자기가 왜 그 유형인지 설명하고 본인에게 힘을 주는 말과 힘을 빼는 말 등을 발표했다. 그리고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재미있는 의견을 내면서 즐겁게 교육을 마쳤다. 교육생들은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타인에 대해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로에게 더 큰 공감대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5m 잠수풀에서의 새로운 도전

애니어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이어진 프로그램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스킨스쿠버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스쿠버 전문 강사에게 스쿠버장비 착용방법과 주의할 점들에 대해 1시간에



▶ 애니어그램 교육을 받고 있는 참가자들



▶ 5m 잠수풀에서 진행된 스킨스쿠버 실습

걸쳐 안전교육을 받은 후 곧바로 5m 깊이의 잠수풀에 들어가는 실습을 해 보았다.

처음 착용하는 장비라 준비과정이 어려웠지만 서로 도와가며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풀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쳤다. 공기통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수영을 못해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는 교육생들도 있어서 발도 닿지 않는 5m 깊이의 풀장에 들어간다는 것이 큰 두려움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한 두 명씩 점프하여 잠수풀에 입수하고 먼저 들어간 동료와 조교들이 잠수풀 안에서 잡아주면서 서로간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 결국 서로간의 협력과 믿음으로 인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스킨스쿠버 체험을 마칠 수 있었다.

이 날 교육을 담당했던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의 남용주 책임강사는 "지금까지의 스쿠버 교육에서 한 조에 1~2명씩은 포기하고 풀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포기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성공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라며 양양군 공직자들의 협력과 도전정신을 높이 샀다.

그렇게 스킨스쿠버에 도전해 보는 과정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 참가자들은 공직에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직원들이 많아 아직 서로 간에 얼굴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화합의 시간을 통해 자기를 소개하고 서로의 성격들에 대해 느끼며 밤늦도록 새로운 도전과 양양의 내일을 이야기했다.

과정인 바다레프팅이었다. 레프팅이 바다에서 실시되는 만큼 바다 상태가 좋아야 하는데, 이 날은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태양도 구름 속에 숨어버리는 등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 매우 걱정되었다. 파도가 없는 내수면에서 하지는 대안도 있었으나 모두가 파도와 싸워보겠다는 강한 도전정신을 보였다.

레프팅 강사의 특별 지도하에 안전교육을 받은 후 바다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다. 3개조로 나누어 보트를 들고 백사장으로 나가 준비운동과 패들링(노젓기)을 교육받았다. 파도가 높아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후 보트에 올라타고 바다로 전진하였다. 열심히 패들링을 하며 파도를 넘어 가려했지만 강한 파도에 밀려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1기는 한 팀만 파도를 뚫고 목적지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전진을 위해 함께 단결하는 양양 공직자들의 모습은 이번 교육의 목적인 모두가 하나 되는데 충분한 모습이었다.

팀이 하나의 머리가 되어 푸는 문제해결법

이번 교육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창조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Team Building과정이다. 조직 활성화를 통해 팀을 구축하고 창조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솔루션 창출을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처음에는 돌씩 짝을 지어 몸 풀기 과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 소도구를 이용해 해결하는 공통 문제를 던져준 후 서로 머리를 맞대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문제 해결 과정 중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단결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기수의 리더인 자치행정과 혁신계장과 인사계장 모두 솔루션범 하였기에 교육생들도 더욱 하나가 되어 열심히 교육에 임했다.

마지막으로 일정 중 베스트 팀을 뽑아서 시상했다. 수상한 팀들은 다른 팀들이 더 잘한 것 같은데 본인들이 받았으며 미안해하면서도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상선물보다도 열심히 한 것을 인정받는 것이 더 기쁜 이유일 것이다.

양양으로 떠나기 전에 작성한 설문지에서 좋은 피드백과 더불어 "이런 교육을 양양군 전 직원이 받았으면 좋겠다" "즐거움 교육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간 참가자들의 미소를 보면서 우리 연구원의 진행 스태프들도 행복함을 가득 안고 돌아왔다.

역시 내가 아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무한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양양군의 Wonderful Teamwork Fighting! 



▶ 모두가 하나되는 해양훈련, 바다레프팅

함께 파도를 헤치다

이튿날 아침 개별적으로 바다산책을 마치고, 9시부터 2일차 교육이 실시되었다. 첫 프로그램은 변화와 도전을 위해 모두가 하나되는 해양훈련



▶ 팀빌딩 몸풀기와 훈련과정

제25회 진안군 '진안마이학당' 5월 31일(목)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개강해 매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진안마이학당'은 본원과 진안군(군수 송영선)이 정보화·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진안마이학당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기혁신 및 자기계발을 위한 소중한 교육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진안군은 각계의 경륜있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진안마이학당이 도덕적 가치관과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5월 31일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제25회 강연을 해주신 강형기 교수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몽달 팀장 dal2020@khdj.or.kr



늘 이야기는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업(業)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정부혁신과 공무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업이 무엇인지 알면 혁신은 저절로 할 수 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사파리공원이 있습니다. 그곳 사파리투어 기사 중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이 분은 투어를 마치면 관람객들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 이 사람은 토털 엔터테이너 000였습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기사 000'가 아니라 '토털 엔터테이너 000'라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은 운전을 하는데, 자신을 단순 기사로 규정하는 사람은 운전대에서 내리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지만 자신을 토털 엔터테이너로 규정한 사람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찾아야 하고 그 걸 써먹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거죠. 운전하는 기준도 기사가 아니라 승객입니



강형기 교수

1954년 생으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 행정쇄신 실무위원, 행정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중앙권한지방이양위원회 위원, (사)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소장, 전국청년시군수구청장협의회 고문,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다. 토털 엔터테이너의 생명력이 뭐죠? 승객이 기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해서 또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자기가 아니고 승객이 되는 거죠.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규제행정 지도행정에 길들여져 자기 발상은 못해 명령하달 조직문화가 공무원 한계 만들어

그렇다면 진안군 공무원의 업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기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행정은 크게 4단계로 그 업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 스스로 그 벽을 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제는 이 벽을 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업이 무엇인지 거기에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1948년 미군정에서 이양 받아 정부가 수복됐을 때 우리의 국력수준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잠비크는 지금도 국민소득이 500달러 정도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죠. 문제는 이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온 행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수복되면서 우리나라가 좌우대립, 국론분열로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사회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공무원들이 했던 중요한 업무가 규제행정입니다. 법규를 가지고 질서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했죠. 공무원이 밀가루 줄 건지 옥수수가루 줄 건지 우유 줄 건지 판단하는 판단자고 주민이 수혜자였습니다. 이 때 공무원들은 법규, 준칙을 가지고 행정을 했어요. 이런 행정을 25년 동안 하면서 나라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규제행정을 하고 나서 72년 새마을사업을 전후해 우리나라 행정이 바뀝니다. 어느 정도 질서도 잡혔으니 먹여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농림부나 내무부에서 시책이 내려옵니다. 공무원은 내려온 시책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지도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 지도자였어요. 지도하는 공무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관리였습니다. 주민관리도 PR을 잘해야 한다고 해서 공보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농약 언제까지 쳐라! 통일벼 심어라! 감자 파종 언제 해라!' 외치



면서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허기에서 벗어나게 한 겁니다. 이렇게 25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공무원들이 피땀 흘리며 뛰어서 국민들 밥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25년간 한 일이 중앙에서 지휘, 명령, 통촉, 훈령, 시달이 내려오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책은 잘 세우는데 정책을 못 세워요. 그 시절에는 자기 생각, 자기 발상을 하면 오히려 야단맞았습니다. 시키는 일이나 잘 하라는 거죠. 지휘, 명령, 시달에만 따라 움직이는 게 체질화되어서 발상을 하라고 하면 발상도 준칙이 있는지 전례가 있는지 찾으면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말이 '전승불복(戰勝不復)', 전쟁의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과거의 경험에 빠져서 미래를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법규가 있고 감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집단적으로 공무원의 한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볼 지 몰라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못해서 못하는 일은 없어요. 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중요시했던 말 중 하나가 '병형상수(兵形象水)'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대는 물에서 배워야 한다는 뜻이죠. 물은 자기가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 흐릅니다. 지형에 불평하지 않고 적응하며 흐르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간 입력된 것이 많은 집단이라 바로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현재 진안이 처해있는 입장이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대처가 됩니까? 한 건도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2050년에 진안군에 있는 면들 중에서 마을로서 유지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60년대 대한민국 인구의 28%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2000년도에는 인구의 85%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까지의 관례로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경험을 많이 입력한 우등생보다도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바보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

었습니다.

지방자치는 가슴으로 하는 정치

현실을 가슴에 품고 제도의 장벽과 자원의 한계 넘어서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발상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25년간 주민관리하고 지도행정 하면서 보냈는데, 이런 패턴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95년 민선자치체가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자치기구가 된 거죠. 자치기구가 되면서 행정이 자치행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개발이 됐습니다.

자치기구는 곧 정책기구이기 때문에 진안군이 존재하려면 시키는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현실을 가슴에 품고 현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중앙행정은 냉철한 머리만 있으면 잘할 수 있지만 지방행정은 현실을 가슴에 품어야 하기 때문에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가슴으로 하는 정치입니다.

가슴으로 하는 정치를 하려면,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기형 공무원이 프로듀서형 공무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프로듀서형 공무원이 되려면 먼저 프로가 돼야죠. 프로는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일로써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그럼 공무원은 프로일까요? 프로란 그 업무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으니 프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프로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지나온 25년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프로듀서는 됩니까? 프로듀서는 진안이라는 캔버스에 무엇을 그리고 보태고 뺄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출하고 잉태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한계가 제도와 예산과 권한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프로듀서는 필요하다면 제도를 구상하고 예산을 쟁취하고 권한을 가져와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도 진안이라는 무대 안에서 상상력을 실천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끌어와 뭔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자치입니다.

제가 북해도에서부터 일본 남쪽까지 걸어다니면서 쓴 책이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인데, 걸어 다니는 동안 얻은 결론이 지방자치나 지역개발은 제도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나 지역개발은 제도의 장벽을 넘으려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과 애착과 지혜로 하는 겁니다. 이 열정과 애착과 지혜가 있으면 제도의 장벽과 자원의 한계는 극복할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상상력, 시스템, 리더십을 자원으로 한 정책개발이 핵심 모든 정책은 '문화의 옷' 입어야

세계 여러 도시를 분석해 보면 뜨는 도시가 있고 지는 도시가 있어요. 잘 나가던 도시도 가라앉고 아무 것도 없는 도시가 뜨기도 하죠. 예를 들어

사막 위의 라스베가스에 비하면 진안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라스베가스가 앞섭니다. 결국 뜨는 도시는 유형적 자원이 있거나 입지조건이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사는 도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그 공무원들과 지역 유지들의 머리 속에 상상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상상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생산적 조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생산적 조직을 장기적으로 밀어주는 정치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가 갖춰져 있는 도시 중 성장하지 않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럼 뭘니까? 지역 최대의 자원은 인간의 지혜와 상상력,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이 시스템을 이끌어 가는 정치적 리더십입니다. 21세기의 자원은 자연자원이 아닙니다. 진안이 과거에는 오지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진안을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하고 싶은 일은 많고 경쟁은 더 극심해지는데, 돈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정책개발이 핵심입니다. 개발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주역으로 나서서 일을 해야 돼요. 행정도 경영입니다. 경영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이 꽃피어야 합니다. 꽃이 핀다는 건 기업화를 말하는 거죠. 이제 기업하는 것이 우리 전 공무원의 업입니다. 경영행정의 핵심은 기업행정입니다. 21세기에 산촌 진안군 공무원의 업은 기업가라 이거죠.

요즘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그린 투어리즘이 얼마나 행복한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린 투어리즘은 거의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관광농원이 많은데 이것도 기본은 집이죠. 용자받아서 관광농원을 지었는데,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겨우 20~30분 둘러보고는 먹고 노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다른 집이 생기고 손님을 뺏기니까 더 크게 짓고, 또 더 좋은 집이 생겨나고 하니까 빗만 늘어난 겁니다.

보고 먹고 놀기만 하는 것을 1단계 그린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2단계 그린 투어리즘은 보고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배우고 창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은 초라한 시골집 그대로지만 할머니가 천연염색을 아주 잘하세요. 음식 솜씨도 좋아요. 그래서 음식과 함께 대화를 하고 염색을 배워서 만들어봐요. 이걸 집만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를 보고 느끼고 가는 거죠. 이 경우는 집에 치장을 한 게 아니니까 시작할 때 빗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3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헬스 투어리즘으로 가야 합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호텔 이상의 호텔. 시설이 호텔 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호텔 이상의 호텔 문화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21세기에 진안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21세기의 모자'를 서야 합니다. 모든 행정이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의 모자를 쓰지 않은 그린 투어리즘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심각한 건 농촌인구부터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안군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정주민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류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또 정주민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선택형 주민은 다른 곳에 갈 수 있지만 진안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숙명형 주민은 내가 조금만 잘났더라면 다른 곳에 가서 살텐데 내가 못나서 진안에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지역에 숙명형 주민이 많다면 아무리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일하고 돈을 투입해도 인구는 더 줄어듭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추운 겨울 봄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희망 갖고 일해야

그래서 지역개발 할 때 가장 먼저 업을 세워야 할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업을 세우는 핵심은 우리 진안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함께 실천하는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저는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로 남처럼 하지 마라. No.1이 아니라 Only one을 추구해라. 두 번째로 돈 없다는 말은 하지 말자. 시간과 정성을 더 쓰면 돈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돈만큼 하지 마라. 돌 하나를 쌓아도 제대로 쌓아야 한다. 세 번째로 혼자 하지 마라. 좋은 생각이 있으면 주민에게도 호소하고 기업에도 호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만 보지 마라. 역사를 봐라. 길게 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첫 출발은 희망을 만들어주는 거죠.

학생들에게도 학기 마지막 강의를 할 때 항상 '물처럼 살아라'라는 말을 합니다. 물은 첫째, 어느 그릇에도 담깁니다. 담기는 즉시 그 물그릇의 주인이 되죠.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물은 자기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 속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새로워 집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르다보니까 가장 넓은 곳의 주인이 됩니다. 겸손해서 그래요. 세 번째로 물은 흐르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웅덩이를 탓하지 않고 웅덩이를 가득 메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메워지면 다시 흐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소나무와 겨울나무가 있습니다. 겨울나무가 추운 겨울을 하루하루 견뎌내고 생각하면 스스로 인고한다는 자의식 때문에 하루하루가 무지하게 चु읍니다. 그래서 못 견뎌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겨울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봄꽃을 기다립니다. 봄꽃을 기다리다 보니까 추위는 잊어버렸어요. 어려움을 견디는 인간이 되면 불행하지만 행복한 순간과 희망이라는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네 번째로 물은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뚫으려고 애쓰지 않고 돌아갑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흐르는 물이 매일 그 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물은 한 순간도 그 물 그대로인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새로워요.

여러분들도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군민에게 기다리는 봄꽃을 상상하고 그리면서 일하게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철학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8)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권력에서 찾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 즉, 학문에서 찾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부유함에서 찾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인기나 유행에서 찾으려고 한다.

부처님은 인생을 '고해'라고 했다. 하지만 창조주는 불행한 삶보다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기에 성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행복을 찾는 길을 가르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인기와 유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로 전락하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행복을 위하여 이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어떠한 동기 즉, 어떠한 삶의 자세 또는 철학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다. 파스칼은 누구보다도 참된 철학에 접근해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의 목표인 행복은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을 분배하면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나눠주는 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마음속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참된 철학에 접근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부러워하고 시기할 필요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복을 잃거나 감소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각기 다르지만 보편적이면서 고상한 가치는 모두가 함께 나누어 다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사회적으로 복지국가를 이루어 선진국가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면서도 영원히 후진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금년 12월 대선 정국을 향하여 권력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룩한 기업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두운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지식정보시대에 지식강국을 외치는 지도자들이 일관성이 결여된 교육정책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폴 J. 마이어는 "만약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치러야 할 전투에서 받은 승리한 것이다. 삶의 철학을 세워 보는 것은 자신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라고 했다. 삶의 철학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상에 이르도록 해 줄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최근작,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에서 자신을 세계적인 부호, 위대한 기업가, 리더십의 대가, 자기개발 교육과 모티베이션의 대가, 목표설정의 대가가 되게 한 삶의 철학을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담긴 삶의 철학. 둘째, 염려하지 않고 확신에 찬 삶의 철학. 셋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가진 삶의 철학. 넷째, 용감하고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꺼이 시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업가이자 모험가로서 성취하고자 하는 능력이 담긴 삶의 철학. 다섯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성경의 교훈을 믿는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삶의 철학.

창조주는 동물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여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동물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꼭 필요로 한 것(행복)을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인간의 고상한 예지라든지 선과 덕을 쌓아서 얻게 되는 행복도 다 갖춰진 것이 아니고, 그것(행복)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보상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큰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인간 최고의 예지에 접근하기란 어렵다. 끊임없이 노력하면 전지전능한 神에게 도달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전진해 나가는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참다운 행복이란 선한 생활 즉, 사랑의 실천으로서만 손에 넣을 수 없다. 동물처럼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선한 생활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진리를 믿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바로 성실한 삶의 철학 즉, 인생철학이다. 

감동 주는 삶의 비결

-인생은 투자의 연속이다

김진익 글로벌문화개발원 원장



인간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헬라어로 '안쓰로포스'라고 하는데,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가는 자'라는 의미이다. 또한 꿈이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호라시스'라고 하는데, 장차 성공된 나의 직업과 직분을 미리 내다본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대와 실감이 갈 때를 보통이라고 하고 기대보다 실감이 떨어지면 불만족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감이 기대 이상이면 만족, 감동이라고 한다. 물질적인 것은 최고가 만족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은 감동, 감격, 감탄, 또는 그 이상도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지구촌 66억 인구 중에 특별하게 태어난 단 한사람뿐인 귀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 사랑으로 하나되어 이루어진 가정 매순간 감동의 꽃으로 거듭나는 인생 만들어야

인간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가정은 남녀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럼 남자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할까? 남자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는데, 첫째 '방향을 제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잘못되면 뒤편 뿔수록 잘못 간다. 남편은 가정에서 항상 미래의 꿈을 제시하여 온 가족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남편이 화를 내거나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날개 부러진 새와 다를 바 없다. 둘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남편은 가정에서 영적, 물질적, 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뿌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속담에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기둥뿌리가 빠졌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남편은 뿌리로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식물도 줄기와 열매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누가 뿌리를

잘라놓으면 힘없이 쓰러져 죽어 가는 것 같이 남편은 가정에서 뿌리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 언어표현으로 줄기와 열매를 성공시켜야 한다.

여자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남을 성공시킨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가정을 보면 머리 길고 성이 다른 사람이 있다. 바로 나의 할머니, 어머니, 아내, 며느리이다. 이들 모두는 시집와서 자녀를 낳아 성공시켰고, 진자리 마른자리 돌보며, 자나깨나 자식 걱정하며 내 가정을 성공시켜 준 일밖에 없지 않는가? 그럼에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간다는 것을 어찌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면 누구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것이다.

옛날 고려장 이야기를 봐도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고려장 하기 위해 깊은 산중으로 업고 들어가는데 등에 업혀 가는 어머니는 나뭇가지를 꺾어 놓으면서 가더라는 것이다. 아들이 나뭇가지를 왜 꺾어 놓으시냐고 물었다니 "나는 네 덕분에 살만큼 살았으니 깊은 산중에 들어가 짐승의 밥이 돼도 괜찮지만 너는 자식이 있고 아내도 있는데 깊은 산중에 들어와다가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시며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 놓더라는 것이다. 아들은 등에 업혀 가시는 어머니의 눈물과 나뭇가지를 꺾어놓는 소리에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살아 숨쉬는 어머니를 버리러 가는데 어머니는 죽으러 가면서도 자식을 생각하시는구나 깨닫고 업고 가던 어머니를 길에 내려놓는다. 잘못을 뉘우치면서 바라보니 어머니의 주름살이 자기의 나이테처럼 느껴졌고, 흰 머리카락이 백금발처럼 소중한 보였고, 치질어진 손마디가 황금손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그런데 부부간에는 잘 살려고 해도 상대가 기다려 주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해도 부모가 기다려 주지 않고, 나뭇가지는 흔들지 않으려고 해도 바람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은 유한성, 즉 한번 태어나면 꼭 한번 죽게 되어있고 유일회성, 즉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고 우연성, 즉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매순간

태평양 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 순간을 기쁘게, 오늘을 최고로 살아가야 한다. 비록 보잘것없는 하루지만 특별한 날로 만들어가면서 매순간 감동의 꽃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촌 생명체가 내 옷깃만 스쳐도 새 힘과 새 생명을 얻어 가는 소중한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나 한사람의 변화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을 일으키듯이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는 감동의 물결이 일게 될 것을 확신한다.

과거와 타인은 바꿀 수 없어도 자신과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어제는 과거일 뿐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보잘것없는 일상을 특별한 날로 만들자. 오늘을 미래의 출발점으로 만들자.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수 없다.

감동 주는 삶은 투자하며 사는 것

감동 주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감동 주는 삶은 투자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투자해야 한다는 말인가? 마음투자, 생각투자, 말투자, 행동투자, 시간투자, 지식투자, 지혜투자, 기술투자, 돈투자, 물질투자 등이다.

첫째, 마음을 투자해야 한다.

마음은 헬라어로 '레브',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말이다. 그릇의 존재가치는 그릇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는 대로 결정되는 것이다. 아무리 황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리게 통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통이 되고, 소변을 담으면 요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 일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꽃을 꽂아두면 꽃병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된다. '나'라는 그릇을 어떤 존재가치가 있는 그릇으로 만들 것인가는 자신만의 선택에 달려있다. 항상 넓고 새로운 마음의 그릇에 참사랑을 담고 그 사랑의 마음을 투자하며 살자. 그리하면 상대의 마음에 감동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둘째, 생각을 투자해야 한다.

생각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다.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결정된다. 똑같은 이슬 한 방울도 댐이 독을 만들려고 먹으니 독이 되고, 매미가 노래를 만들려고 먹으니 노래가 되고, 벌이 꿀을 만들려고 먹으니 꿀이 되고, 젖소가 우유를 만들려고 먹으니 우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의 투자는 잠을 자면서도 할 수 있다. 어젯밤 생각이 오늘 아침부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 순간부터 생각의 코드를 긍정화 하자. 긍정과 부정은 글자 하나 차이이다. 절대 긍정적으로 살면 내 인생의 생산 공장이 가동된다.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는 1%의 유전자 차이이지만 그 삶은 천지의 차이이다. 물이 99도에서는 끓지 않지만 100도에서는 끓는다. 1도의 차이이지만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또한 1도에서는 물이 얼지 않지만 0도에서는 얼음이 된다. 타성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절대긍정으로 1% 또는 1도의 차이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투자하자. 그리하면 상대의 생각속에서 감동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 할 것이다.

셋째, 말을 투자하자.

말은 몸 속에 있을 때는 인간의 노예가 되지만 입밖에 나오면 인간이 말


의 노예가 된다. 날아가는 새는 다시 잡아 새장에 넣을 수 있지만 한번 입밖에 나온 말은 두 번 다시 넣을 수 없다. 사람은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입술은 성공과 실패의 문턱이다. 총에 맞은 상처는 치료할 수 있어도 말에 맞은 상처는 영원히 치료되지 않는다. 30초 입술이 30년 가슴에 한이 맺힌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책임이라는 추가 달린다. 무시하는 말은 바보도 알아듣는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 표현을 생활화해야 한다. 감동 주는 언어표현을 하려면 언어디자인을 잘해야 한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퐁퐁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좁 흘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듣기 좋다. 감동언어로 디자인을 잘하려면 먼저 상대가 말하고자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고 상대 언어를 연구하고 감동언어로 디자인하고 공감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감동 주는 삶의 비결은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누가 나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다면 무엇을 투자했겠는가? 마음이 있어 보냈으니 마음투자, 생각이 있어 보냈으니 생각투자, 말을 글로 옮겨 보냈으니 말투자, 시간을 내어 보냈으니 시간투자, 손으로 문자를 보냈으니 행동과 노동투자, 문자 보내는 기술이 있었으니 기술투자, 돈 내고 보냈으니 돈투자 등 많은 투자가 있었기에 문자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를 보내는 순간만큼은 다른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인생을 바친 것이다. 문자하나 받더라도 문자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투자된 정신적 물질적인 요소 전체를 헤아려 본다면 감사와 감동이 넘쳐날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감동 주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에 시기질투하며 산다는 것은 절대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 감동의 꽃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순간 누구를 만나더라도 만나는 그 순간만은 상대가 지구촌 66억 인구 중 나를 선택하여 왔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 나가는 마음가짐 몸가짐이 중요하다.

감동 주는 삶의 비결은 바로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이 순간, 존재하는 누구인가 나에게 투자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그 혜택에 대해 가치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감동 주는 삶을 위한 인생 투자!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투자는 나와 이웃의 삶을 평화롭고 윤택하게 해줄 것을 확신한다. 인생은 투자의 연속이다. 



김진익 원장

1948년 생으로 美 버나딘대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美 리전트대에서 리더십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美 GLOBAL ASSOCIATES 인사과장, 동아그룹교육원 원장, 대전대 한남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국진철문화교육협의회 회장,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수, 중앙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국민일보 사회교육원 리더십 주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고려대 초빙교수, 연세대,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외래교수도 맡고 있다.

회원 & 연구원 소식

... 회원소식

• 6월 26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월간조선사 주최 '2007 대한민국 경제리더 大賞' 시상식에서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이 미래경영 부문에, **강권석 기업은행 은행장**이 가치경영 부문에 선정되어 각각 수상하였다. 올해 처음 제정된 '2007 대한민국 경제리더 大賞'에는 기업 경영자,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단체장 등 110여 명의 후보들이 추천되어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 (주)다산(회장 **윤영상**)은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에서 기계금속 업종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약 1만평 규모의 생산시설용지를 분양받았다. 개성공단은 총 800만평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분양은 1단계 100만평 중 2차 잔여분 53만평에 대한 분양이었다. 개성공단은 서울의 금융, 서비스, 인천의 공항, 항만과 연계한 생산기지로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과 30km 이내의 근접성 및 최저노임(월 50달러)으로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남측의 기술, 자본과 북측의 인력을 결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산은 "개성공단 진출을 계기로 남북 공동 번영 도모 및 교류 협력에 기여할 것이며,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한국 및 중국 청도에서의 성공신화를 다시 한번 창조하기 위하여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백현기)**는 지난 6월 4일 38년 전통의 특허법인 C&S와 합병함으로써 특허분야까지 전문성을 확보한 대형 로펌이 되었다. 한편 백현기 대표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 한국기업인과 한인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법인 로고스 베트남 분사무소 개설 1주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식을 가졌다.



• **에버그린MST(주) 홍승국 대표**는 지난 6월 4일 벨카리노배 KYGA 청소년골프대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꿈나무 육성을 위한 벨카리노배 청소년골프대회는 청소년들의 골프 실력 향상과 전문 골프이론 확립, 국제적 교류를 통한 골프선진국으로의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국내 청소년 골프 활성화 및 한국 골프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이번 대회는 KYGA(한국청소년골프연맹)가 공동 주최했다.

• **예성화랑(대표 한영희)**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견지동 예성화랑에서 Hyper Pop Art 장르의 프랑스 작가인 "Dominique Mulhem(도미니크 물렘)"의 전시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예성화랑은 지난 4월에도 'Bernard Buffet(베르나르 뷔페)'전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 **오경근(오경근스튜디오 원장) 회원**은 7월 3일 오후 8시 아리랑TV 코리아 NOW라는 프로그램, on the Spot 코너에서 '자전거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방송된다.

• **박성훈 재능그룹 회장**이 월간조선 7월호 '한국의 CEO 열전'이라는 코너에 13번째 주인공으로 소개되었다. '스스로 학습법'이라는 토종 학습 브랜드를 개발, 업계 최초로 중국 현지법인 설립 등 창립 30년만에 관계사 10개를 거느린 그룹으로 변신한 박성훈 회장의 경영노하우를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12페이지에 걸쳐 소개했다.

• **김상래 성도GL(주) 대표이사**는 지난 6월 26일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메세나협의회가 주관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2차 결연식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총 19개의 업체들이 결연식을 통해 예술단체를 만났으며, 성도GL에서도 파주 헤이리와의 결연식을 통해 앞으로 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게 됐다.



• **장찬기 (북)해동재단 회장**은 작년 9월 함께 중국 길림을 방문했던 한중경제협력대표단을 한강으로 초청해 본인 소유의 모터보트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 30일, 12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나들이에서 장찬기 회장은 집적 보트를 운전하며 회원들에게 석양이 지는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줬다. 한편 장 회장은 한강 유람 후 저녁만찬을 준비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신규회원



황한택 (주)브레인셀 부사장

- 주 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59 롯데골드루즈
2차 오피스텔 1604호
- 전 화 : 02-562-3688 · 팩 스 : 02-562-9688
- 업 종 : 광고(옥외광고)
- 추천인 : 장찬기 (북)해동재단 회장



박창조 (주) 북리스 대표이사

- 주 소 : 경기 하남 감북 125
- 전 화 : 02-470-2595 · 팩 스 : 02-479-0538
- 업 종 : 제조/ 오디오북, 도서
- 추천인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월간 골프가이드	강민지 대표	7월1일
(주)혁신정보시스템	신덕균 사장	7월1일
일양약품(주)	정형식 명예회장	7월1일
(주)반포텍	최계순 사장	7월1일
삼아솔루션	한승우 대표이사	7월1일
(주)유창	차영준 부사장	7월4일
삼보주단	윤건우 사장	7월5일
(주)다비육종	윤희진 사장	7월5일
우드뱅크	전창윤 회장	7월5일
(주)태창플랜트	송언기 회장	7월7일
(주)서울문화사	심상기 회장	7월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최만형 상무	7월15일
(주)에어랩	황진수 대표이사	7월21일
일우선박(주)	서정권 회장	7월27일

... 소모임 소식

▶ 인경회 회원모집 안내

- **인경회(회장 이용국 / 총무 김태균)**는 6월 월례경기 후 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탁월한 리더십과 열정으로 회원들의 건강과 친목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이심 회장님과 윤건우 총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새롭게 수고해주실 인경회 임원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임원진은 회원

간 골프모임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회장 : 이용국 (신원헬트공업(주) 회장)
- 총무 : 김태균 (인간개발연구원 부원장)

▶ 화목회 6월정기모임 - 회원사탐방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김창호)** 6월 모임은 지난 19일 부부동반으로 회원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26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회원사탐방은 이용국 신원헬트공업 회장의 당진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신원헬트공업은 국내 최초의 헬트 생산업체로 1965년 설립되어 현재 공업용, 의류용, 패션용 헬트 생산 분야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이용국 회장님과 신원헬트공업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원 소식

- **한러친선협회(회장 유종하 / 이사장 장만기)**는 6월 20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 연방상의 회장(前러시아 총리 및 외무장관)을 초청하여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증진에 관한 만찬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러시아 관련 기업, 학계, 정계 인사 250여명이 참가해 교류와 함께 프리마코프 회장의 "러시아의 국제적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테이블 스폰을 해주신 (북)해동재단(회장 장찬기)과 행사전체 와인을 스폰해주신 (주)비노스(사장 한종우), 삼아솔루션(주)(사장 한승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자체 소식

• 제12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역 주민과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고 자치단체의 경영 상태를 진단할 평가 시스템의 개발을 돕고자 1996년 제정된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에 본 연구원과 아카데미를

부문별-대상	문화관광	전남 완도군 (군수 김종식)
	보건복지	광주 동구 (구청장 유태영)
	지역정보화	강원 원주시 (시장 김기열)
	인적자원육성	경기 부천시 (시장 홍건표)
최고경영자상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각 부문에 걸쳐 선정되었다. 올해는 응모한 3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혁신 등 8개 부문에 걸쳐 11개 항목과 150여 개의 세부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만족도 조사를 더하는 방식으로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했다.

• 200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IMBC, 동아닷컴, 한경닷컴 등 3사가 주최한 '200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6월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소비자들이 참여한 조사 통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

사위원단의 심사에 의해 선정된 2007 마스터 브랜드에는 기업 29개, 지자체 19개, 한류스타 2개 부문 등 총 50개 부문이 선정됐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수상 지자체에서는 제품 마케팅이나 브랜드 홍보 때 '200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이라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대표브랜드
남해군 (군수 하영제)	사랑해요 보물섬
장성군 (군수 유두석)	홍길동
담양군 (군수 이정섭)	담양대나무 숲
상주시 (시장 이정백)	명실상주
하동군 (군수 조유형)	하동녹차
봉화군 (군수 엄태항)	봉화송이
고창군 (군수 이강수)	고창수박
진도군 (군수 박연수)	진도홍주
청양군 (군수 김시환)	청양고추

• 밀양시 영화 '밀양' 연계 관광상품 개발



영화 '밀양'의 주무대인 경남 밀양시(시장 엄용수)가 영화의 촬영지와 자연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화 방안을 마련한다. 밀양시는 제60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밀양'의 주무대로 밀양지역을 전국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코레일(KORAIL) 부산지사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화 밀

양의 주요 촬영지와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이 개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11회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올해 열 한 돌을 맞는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2007)가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부천시(시장 홍건표)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스릴러와 같은 판타스틱 장르뿐만 아니라 코미디아



로맨스, 액션 등 다양한 영화를 초대할 것이 특징이다. 33개국에서 출품한 영화 216편(장편 125편, 단편 91편)이 부천시민회관과 복사골문화센터, 부천시청,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된다. (문의032-345-6313)

• 거제문화예술회관 전국문예회관 혁신경진대회 문화부장관상

경남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한겸)은 제주도 해비치리조트에서



열린 '2007 전국문예회관 혁신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문예회관 혁신경진대회는 전국 98개 회원기관이 참여한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시상으로 거제문화예술회관은 운영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문화부장관상과 함께 부상으로 해외연수 경비를 받았다.

• 고창복분자축제 성황리에 마쳐

전북 고창(군수 이강수)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복분자를 주제로 하는 제



3회 고창복분자축제가 6월 15일~17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선운산도립공원과 복분자특구인 아산, 심원, 부안면 일대에서 복분자 수확체험과 복분자 요리 및 가공식품 전시, 각종 공연 및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복분자설화 단막극 공연과 풍천장어와의 맛 어울림, 복분자 골든벨퀴즈 등 새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 한국엘엠아이 소식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숙명여대 9, 10기 KICK OFF
6월 18일 오후 4시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EPL(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9, 10기(교수 22명)가 안호열 LMI 마스터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KICK OFF MEETING을 가졌다.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77기 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LMI 본사(개포동) 교육장에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과정 77기가 송향섭 LMI 수석 FT의 진행으로 교육중이다.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www.lmikorea.com



清華大學

最高位政策過程(集中課程)



Program

7/17(화) 제1일차

- 10:00 인천 → 북경
- 13:00 북경 현대자동차공장 시찰
- 15:00 中國 河北省 '燕郊경제기술개발구'와 인민정부 방문 / 토론 및 만찬
- 17:30 中國 河北省 燕郊市 인민정부 초청만찬
- 19:30 清華大學校 迎賓館 입소
- 20:00 Orientation / 분과별 모임

7/18(수) 제2일차

- 08:30 개학식 : 清華大學校 人文社會科學學院
- 09:00 제1강 : 새로운 東北亞時代의 韓中 協力方案 (강사 : 張繼詒 중국사회과학원 아주대평안연구소장)
- 12:00 午餐 (Teacher's Table & Member's Table 운영)
- 14:00 제2강 : 韓中 FTA 現況과 韓中 未來 關係 (강사 : 孫曉郁 국무원 국가발전연구원중심 부주임)
- 18:00 晚餐 (Teacher's Table & Member's Table 운영)
- 19:00 중국문화 체험 I (베이징 798 예술구 및 전통음식 체험)

7/19(목) 제3일차

- 09:00 제3강 : 理解中國 - 政治, 經濟, 文化, 歷史 (강사 : 閻學通 清華大 국제문제연구소장)
 - 12:00 午餐 (Teacher's Table & Member's Table 운영)
 - 14:00 제4강 : 對 中國進出 創造的 共生的 戰略 (강사 : 崔在善 인간개발연구원 중국담당 부원장)
 - 17:30 晚餐 (Teacher's Table & Member's Table 운영)
 - 19:15 중국 문화체험 II (중국 전통 서커스 관람)
- 3일차 프로그램은 기업시찰 프로그램(清華출당소)의 추가를 검토중에 있어 다소 유동적입니다.

7/20(금) 제4일차

- 09:00 제5강 : 21世紀 中國의 外交戰略과 Global 戰略 (강사 : 楊燕怡 前 駐 브루나이공화국 특명전권대사)
 - 12:00 午餐 (Teacher's Table & Member's Table 운영)
 - 14:00 제6강 : 文化協力を 통한 韓中創造的 共存 (강사 : 龍宇翔 국무원 중국국제문화전파중심 집행주석)
 - 18:00 Greater Asia를 여는 5050人會 晚餐 (각계 지도자 만찬)
 - * 양국 참석 령도 소개
 - * 청화대 인문학원 당서기 강화
 - * 수료증 및 수료패 수여식
 - * 상호 선물 교환
 - * 한국측 대표 치사
 - * 양국의 우의를 여는 건배
- '5050人會' 분야별·그룹별 交流의 場

7/21(토) 제5일차

- 06:00 조식 및 Check Out
- 07:00 제1조 : 차이나 LPGA 골프투어
제2조 : 중국 CC TV 등 북경 시내 투어
- 15:50 북경 → 인천

현재 세계 각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중국으로 사업결단의 자세로 공략해 들어오고 있으며, 중국의 토종기업들은 일취월장 쾌속진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이 자칫 방심을 한다면 진퇴양난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합니다. 이에 Network Quotient(네트워크지수)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지금 人間開發研究院은 중국내 최고의 정책을 다루는 브레인들과 인적 네트워크의 개발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원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清華大學校의 교수진 및 지도자들과 함께 韓中 FTA의 현황과 경제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21세기 중국의 대외 외교전략에 따른 韓中관계를 전망하며, 나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글로벌 리더들간의 그룹별 '交流의 場을 마련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의 자리를 갖고자 본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韓中 수교 15주년과 韓中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동북아시아를 열어가 韓中 글로벌 리더들간의 상호교류 및 현장시찰은 對 중국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韓中간의 창조적 공존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과정주관

- 中國 清華大學校 人文社會科學學院
- 社團法人 韓國人間開發研究院

지원자격

- 기업체 대표 및 임원, 벤처기업인, 사회지도층 인사, 문화/예술계 지도층 인사
-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정부인사, 국군장성, 공기업 고위 책임자
-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모집인원

- 30명 ~ 50명 내외

교육기간

- 2007년 7월 17일 ~ 2007년 7월 21일 (4박 5일)

교육장소

- 中國 清華大學校 迎賓館 大會議室

교육비용

- 회 원 : 3,000,000원
 - 비회원 : 3,300,000원
- 교육비, 항공료 및 숙박비 등 제반 전체 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여권비자 수수료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 전

- 중국 각계 저명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韓中 5050人會)
- 후속 프로그램 우선 참여 특전 부여
- 특성화그룹 모임 지원 및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
- 清華大學校 고위정책과정 정식 수료증 및 수료패 수여

[참가문의]

- 담당자 : 최선욱 팀장 (인간개발연구원 교육팀)
- 연락처 : 02-2203-3500(내선 104)

제25회 제주 CEO 포럼

JEJU AGORA



일 정 : 2007년 8월 1일(수)-8월 4일(토) 3박4일
장 소 : 제주 신라호텔
참가대상 : 기업체, 공공기관 CEO 및 임원 300명
주 관 : 제주 아고라 조직위원회
후 원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참가비 : 150만원 (1가족당)
문 의 : TEL. 02-2203-3500(103)
인간개발연구원 사무국 정성숙 과장

아고라(Agora)란 고대 그리스의 '토론의 광장'이라는 뜻으로, 그리스 시민들은 아고라 광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국가대사를 결정짓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 아고라가 있었다면 로마에는 포럼(Forum)이 있었습니다. 포럼이 다분히 공식적인 의사전달 방식이었다면 아고라는 자유분방한 '생방형' 대토론을 통하여 유익한 결론을 도출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고라가 다시 주목되는 것은, 최근 전 세계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웹2.0' 시대를 맞이하여 아이디어와 아고라를 합성한 '아이디어고라스'(Ideagoras)로 경영활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제주 아고라 조직위원회는 올해의 주제를 '아이디어고라스와 한국기업의 힘'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2007 제주 아고라 조직위원회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張萬基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 尹桂燮



현대경영학당
이사장 邊衡尹

2007년도 제주 아고라 조직위원회는 지난 24년간 제주 밀레니엄포럼을 주관해온 인간개발연구원과, 2005년부터 제주 아고라(JEJU AGORA)를 출범한 현대경영학당과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이 제휴, 제25회 JEJU AGORA 통합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그랜드 오픈합니다. 1993년 설립 이래 한국의 경제정책방향에 관하여 꾸준히 대안을 제시하여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후원 하에 열리는 올 제주 아고라에는 정부의 최고위 정책 브레인과 민간 Economist를 대거 초청, 한미 FTA 파도를 뛰어넘는 '한국기업의 힘'이 각 분야별로 연구 토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기업체 경영자와 임원 여러분의 많은 참가와 지도 바랍니다.

Program

8/1(수) 제1일차

14:00	등록접수	제주신라호텔
15:00	개회인사의 말씀	변형윤 이사장 서울사회경제연구소
15:10	오리엔테이션	제주 AGORA 조직위원회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박동순 현대경영학당 사무처장
15:30	제주 아고라 기념강연 1 '국가발전과 한국경제의 힘' - 장보고 정신과 1조달러 무역의 꿈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16:40	제주 아고라 기조강연 2 '국가발전 전략기획본부장'에게 듣는다 - 성장과 안정과 균형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17:40	'문화유산을 보는 눈' 특강 '나는 경제강국보다 문화강국이 좋다'	유홍준 문화재청장
19:00	개회기념 리셉션	
20:00	친교와 대화의 한마당	

8/2(목) 제2일차

09:00	Good Morning 특강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박종구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
10:00	산자부장관 초청 대토론회 '세계화와 한국기업의 힘'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10:40	한미 FTA와 10대 산업별 효과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11:20	대토론회 : 한미 FTA와 제2개국 한미 FTA의 후속보완책	김세원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일용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2:10	제주아고라조직위원회배 골프대회 및 자유관광	

8/3(금) 제3일차

09:00	건교부장관 초청 신진 건설교통행정자의 현안과제와 비전을 말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10:10	SK텔레콤의 테크놀로지 리더십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11:10	세계일등기업-GE의 세계경영	황수 한국GE 사장
	CEO 가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The 7 Habits)	
14:00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증권투자습관	김영의 대한투자증권 부사장
15:00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부동산투자습관	이상영 부동산114 사장
16:00	공정위원장 초청 폐회기념강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제언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7:00	총합강령 : 세계화와 한국기업의 힘	윤계섭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
17:10	폐회인사 : 제주 아고라의 힘이 한국경제의 힘이 되기를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19:00	제1부: 제주 아고라의 밤 이백용·송지혜 부부 초청 MBTI에 의한 부부사랑 이야기	이백용 바이텍시스템 사장 송지혜 숙대 교수
20:00	제2부: 제주 아고라 열린음악회	'해오름누리'그룹 초청 공연

8/4(토) 제4일차

친선골프그룹	기타 일반가족
06:00 이동: 호텔-골프장	06:00 호텔내 수영장
07:00 인간개발연구원 회장배 골프대회	중문해수욕장
11:30 이동: 골프장-호텔	산책 기타 휴식
12:00 호텔 체크인아웃	12:00 호텔 체크인아웃



무엇이 한 민족과 국가를 위대하게 하는가

정만우 (주)실버텍스 사장

학 교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서 일하던 시절, 우연히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를 접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듣지도 못했던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역사에 눈뜨게 되었다. 연이어 <한단고기>, <규원사화> 등 우리 민족의 개천과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이족, 맥, 숙신족, 부여족 등의 연원과 한반도에서 고착되기 이전, 즉 고구려 이전의 우리 조상들의 대륙에서의 웅장한 대 활약상을 알게되면서 마치 그 현장에 서있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졌다.

역사는 국가 정체성의 핵심

위대한 민족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민족사가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완전히 차단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 식민치하에서 일제에 의해 조작된 역사 교육을 받은 이병도 박사와 그 제자들이 중심이 된 강단 사학자들은 해방 이후에도 강단을 접거하고 있었다. 이들이 역사 실증주의라는 잣대로 기록권을 강화하며 역사교육을 독점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사료를 해석하거나 연구하려는 어떤 시도도 배제한 까닭이다. 그나마 뜻있는 일부 한학자, 언어학자, 작가 등 역사학도가 아닌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던 사료들이 발굴 연구되기 시작했다. 또 최근 강단의 일부 학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이다.

일본이 있지도 않았던 자기네 역사를 조작하여 그 건국 연대를 부풀리고, 중국이 1995년부터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국책사업으로 만주와 청나라, 몽골, 대한민국의 역사를 중국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조차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일본이나 중국은 왜 그렇게 자기들의 역사를 더 크고 장구하고 위대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만든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일까. 역사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야말로 그 민족과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다. 하다못해 개인들도 족보를 만들고 뿌리를 찾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냥 우연히 외톨이처럼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에게, 타인들에게, 후손들에게 증거하여 자존감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선민의식 강한 유대인들, 정체성 교육으로 민족의 우수성 알려 한국 역사적으로 닮은 점 많아

자기 나라에 대한 역사의식과 정체성의 인식이 국가 장래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잠시 이스라엘을 예로 살펴보자. 무역업에 종사하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과 비즈니스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만하지 않고 대충 대충 하지도 않으며,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 논리가 강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하고 유대인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짜여져 있어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 도움을 준다.

크리스천인 내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여러 차례 순례여행도 했지만 국민 기질이나 열악한 환경, 많은 외세의 침략 등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아주 많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면 아시아대륙의 서쪽 땅 끝에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 땅 끝에는 대한민국이 같은 위도 상에 좌우로 대칭하고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외세에 의해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 새롭게 독립하여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지구상에 두 나라와 같이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두 나라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다. 우리나라도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국가를 세웠다는 천손민족 사상이 있으며, 애국가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한다. 이밖에도 생활습관, 언어 등에서 닮은 점들이 너무나 많다.

유대인들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유리하였고, 현재의 이스라엘도 국토 면적은 경상남북도 정도이다. 인구도 전세계 합해서 1500만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처지인 것이다. 그런데도 세계 금융시장, 언론, 영화, 자원, 예술 등 많은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도 3분의 1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무엇이 그들을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을까? 아니, 무엇이 우리와 다를

까? 그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우수해서인가? 하버드대에서 세계 여러 민족의 IQ를 비교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우수했고 이스라엘이 근소한 차이로 2위였다는 보고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위대성은 교육에서 비롯한다고 말한다. 어릴 때부터 그들의 역사요, 율법요, 철학인 토라 모세 5경과 탈무드를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몇 천년이 지났으나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이다. 수 천년에 걸쳐 지혜로운 랍비들이 유대의 율법을 삶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탈무드를 통해서 계속 케이스 스터디를 시키고 있는 셈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교에서나 하고 있는 학습법을 어릴 때부터 적용해서 10살에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한 애늬은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과 조상 대대로 흐르는 지혜로 무장한 이들이 비즈니스든, 학문이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체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다.

경제발전에만 매달려 역사의식 부재, 정체성 상실 잃어버린 역사의식과 정체성 회복하고 하늘의 뜻 따르면 번영의 길 열 수 있어

여러 경제학자들이 20세기 후반 최대의 기적은 가장 짧은 기간에 자원도 없이 전쟁의 폐허와 남북의 분단 대치 상황 속에서 이룩한 한국의 경제발전이라고 말한다. 많은 후발국가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삼고 배우려 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통치자들은 국민들에게 밝고 멋진 비전을 심어주지 못해 국론은 분열되고 지엽적인 문제를 두고 시시비비를 반복하고 있다.

사회와 가정에도 여러 가지 피로현상이 만연되어 졸부들의 안하무인적인 처세가 국내외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혼율은 세계 1위를 향해 뒹박질 중이며, 온갖 음란문화가 판을 쳐서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 귀한 생명들이 낙태수술로 매일 수 천명씩 죽어가고 있다.

무엇이 우리를 뒹뒹거리게(staggering)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을 보면 쉽게 그 답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 부재와 정체성 상실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마치 돈버느라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자식교육이 엉망이 된 것과도 같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멋진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국조 단군께서 나라를 처음 세우실 때의 건국이념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의 지도층이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하고 일어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대로 멋진 지평이 우리나라에 열릴 것이다.

국조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은 원래 '개천시교 재세이화 홍익인간(開天施教, 在世理化, 弘益人間)'에서 나온 말이다. 그 뜻은 '하늘의 뜻을 펴 가르침을 베풀고(開天施教), 세상을 참된 이치로 변화시켜(在世理化), 사람을 크게 유익하게 한다(弘益人間)'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지상천국을 이룰 사명을 받은 나라이다. 이웃 나라들과 화평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며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의 조정자로 나서야 할 역할을 받은 나라인 것이다. 강대국이 되어 약한 나라들에 군림하고 압박하는 나라가 아니라 더불어 풍요롭고 복을 나누어주는 참사명자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흰옷을 입고 하늘에 천제를 드리던 천손민족이다. 만약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각성이 우리들 가슴속에 다시 살아난다면 하늘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축복할 것이다. 잠시 반짝하는 번성이 아니라 영원한 번영의 길을 여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온 것은 좋은 징조로 보인다.

만약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한다면 각자의 종교나 철학을 잠시 내려놓고 한 권의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유석근 목사가 쓴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민족>이라는 책은 여러분의 의식에 새 지평을 열어줄 것이며, 더 많은 연구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공감한다면 자녀들에게도 회사 직원들에게도 권해주길 바란다. 그들은 분명 왜 열심히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자부심을 갖고 조국의 귀한 소명을 깨달아 더욱 분발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 무의식 저편에서 잠자던 사명 받은 백성의 DNA를 깨워 이 나라를 동방의 밝은 빛으로 타오르게 해야 한다. **KHID**



정만우 사장

1950년 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전경련 GBS를 수료했다. 인간개발연구원 이사로 활동하며 LMI EPL 과정 및 퍼실리테이터 과정에도 참여했다. 1977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10년 동안 수출업무를 담당했으며, 1986년 (주)실버텍스를 설립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계열사로 서부청과(주)와 (주)호센 등이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경제부총리



월드컵 응원



촛불 집회

우 리나라 정치는 지금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누가 어떤 도전을 누구로부터 받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여권인사에겐 야당의 대두가 도전이고, 야당인사에겐 여권의 '대통합'이 도전일 것이다. 야당의 대선주자들은 경쟁자의 검증공세가 도전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으로 보면, 이 나라가 받고 있는 도전은 바로 민주주의이다. 이 나라는 과연 생산적인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정치인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기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의 생산성이 이렇게 낮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이 나라 민주주의는 거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정치의 절대적인 화두는 민주주의였다. 많은 민주주의 투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개발독재는 극복됐다. 그러나 대통령직선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는 과연 성공하고 있는가. 나라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데 민주주의는 과연 얼마나 기여했는가. 오늘의 정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두 분이 연이어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승리한 것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지역이었다. 민주주의의 생산성은 낮았다. 문민정부의 경제운영은 그 목표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나 개발 연대의 그것을 크게 벗어난 것이 없었다. 국민의 정부의 기본방향은 IMF의 차관조건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 나라 사람들은 IMF를 따르면, 경제는 곧 순조로운 성장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았지만 그 기대에는 근거가 없었다. IMF 이후,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양극화가 자리잡았다.

민주주의를 위해 온 몸으로 투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국가운영에 참여한 정권은 참여정부이다. 따라서 이 정권은 이 나라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4년 반 동안의 업적은 역사로부터 받은 사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들이 그처럼 외친 민주주의는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강력하게 경제발전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을 바란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사실 그것은 말뿐이고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 영남은 영남, 호남은 호남의 이익을 우선하고, 충청이 캐스팅보트를 주는 기본 구도가 되풀이 될 것이 아닐까. 아!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선택에는 고작 이것밖에 없는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이 나라 정당들은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후보 하나 순조롭게 못 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생산성을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인물을 내놓는 일조차 이렇게 어렵다.

야권에서는 두 사람의 후보가 검증의 까다로운 기준을 넘기 위해 고생을 하고 있다. 여권은 어떤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정권의 주역들이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음을 비우고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인물을 찾아서 내보내는 일이다. 이것이 여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여권인사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지난날의 헌신은 나라를 위한 일이었지, 일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라는 말이다. **KEHND**

• 화재보험

• 적하보험

• 배상책임보험

• 여행/리저생활보험

• 운전자/상해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가정생활보험

일천구백사십구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족자본손해보험사로 출발하여 끊임없는 상품개발과 서비스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제일화재 개인의 행복, 기업의 안정, 나아가 사회문화 발전을 위해 오늘도 안심을 전하고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사 최고의 영예 스카이트랙스 5 STAR AWARD 수상

전 세계 400여개 항공사의 기내·외 모든 서비스를 평가하는 SKYTRAX-
아시아나가 세계에서 5개 항공사에게만 수여된 스카이트랙스 5 STAR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계 최고 항공사의 서비스로 고객을 모시겠습니다.



- ▶ SKYTRAX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항공관련 전문 리서치 기관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항공사의 등급을 평가하는 권위있는 상입니다
- ▶ 5 Star 항공사 :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카타르항공, 말레이시아항공

■ 예약 및 문의 · 1588-8000 · flyasiana.com

아시아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400여 항공사 중 5Star를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 